

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유형과 원인에 관한 연구

김수범*, 김종범, 안영화

선박검사기술협회*, 제주대학교

서 언

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사고는 귀중한 인명과 재산은 물론 사고 선박으로부터 배출된 유류와 폐기물 등의 유해물질은 주변어장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물을 멸종시키는 해양오염원이 되고 있다.

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는 항행 중 태풍이나 폭풍 등을 만나 선박이 침몰하거나 전복되는 불가항력적인 자연 재해와 선박의 구조와 설비 등의 선체 결함에 의한 요인도 있으나, 최근의 해양사고는 그 선박을 조종하고 관리하는 승무원의 항해 부주의나 직무태만, 항해정보의 부정확과 운항기술의 미숙등 인적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선박해양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.

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전체 해양사고의 유형을 분석하고,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발행한 최근 5년(1994~1998)간의 해양사고 통계와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어선 해양사고 사례집(1994~1998)을 이용하였으며, 또한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어선해양사고의 유형과 원인은 해양경찰청에서 조사한 1990~1999년까지 10년간의 해양사고통계연보를 이용하였다.

자료 및 방법

우리나라 연근해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 해양사고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발행한 최근 5년(1994~1998)간의 해양사고통계와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연도별 어선 해양사고 사례집을 이용하였으며, 또한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발생한 어선해양사고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료는 해양경찰청에서 발행한 1990~1999년까지의 10년 간 해양사고통계연보를 이용하였다. 또한 어선 승무원들이 해양사고에 관한 안전의식과 선박조종 및 해상교통법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선적을 둔 4개지역(제주항, 서귀포항, 한림항, 성산포항)의 어선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2000년 8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 설문의 내용은 총 31문항으로 이중 응답이 부실한 1문항을 제외하고 30개의 사례만을 선정 수집된 설문지를 분석하였는데, 주로 빈도, 백분율 및 평균값이 사용되었으며 자료의 분석 프로그램은 EXCEL97을 이용하였다.

결과 및 요약

우리나라 연근해 및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·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

1. 선박의 종류별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전체 해양사고중 어선이 약 69.6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그 다음이 화물선으로 11.8%, 여객선이 2.2%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, 이것은 전체 선박등록척수 가운데 어선이 약 94.1%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, 실제 선박등록척수에 대한 해양사고 발생율은 여객선, 화물선, 어선의 순으로 나타났다.

2. 사고 해역 별 해양사고 발생현황은 남해안이 905건, 서해안 621건, 동해안 379건이며, 주요항계별 해양사고 발생율은 인천항 수역이 22.8%, 부산항 수역이 22.3%, 거제 수역이 9.9%, 삼천포·통영 수역이 8.7%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.

3. 해양사고 발생시간대는 1일중 04시부터 08시 사이가 약 19.6%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간대는, 어선인 경우 야간 조업을 마치고 어획물을 수협 위판시간에 맞춰 입항해야 하므로 선원들이 수면부족과 피로누적으로 인한 인적과실이 많기 때문이다.

4. 1990~1999년 사이에 동중국해를 포함한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연평균 발생건수는 138건이며, 그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전체 해양사고중 기관 고장이 46.1%, 추진기 및 타기 고장이 17.8%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, 그 다음이 전복과 침몰 13.8%, 좌초 10.7%, 충돌 7.0%, 화재 5.2%로 선체 및 기관의 정비불량과 운항부주의등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.

5. 해상안전에 관한 의식조사에서 제주도 어선 승무원의 업종별 종사 현황은, 연승어업과 채낚기 어업이 각각 42%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, 해양사고의 종류는 기관고장이 39%, 스크류 고장이 17%, 접촉이 16%, 좌초 및 화재가 7% 순으로 나타났다.

참고문헌

1. 중앙해양안전심판원, 해양심판 사례집 (1994~1998)
2. 선박검사기술협회, 어선해양사고통계 (1994~1998)
3. 제주해양경찰서, 해양사고통계연보 (1990~1998)